

〈사진 1〉 행사개최를 알리는 플래카드

〈사진 2〉 우리 돼지 잘 뵈다! 참가자들의 몰이에 따라 레이스를 펼치는 새끼돼지들

## “새끼돼지 여섯마리 레이스 펼쳐” — 건대 사료영양학과 「돼지와 즐겁게」 행사 개최

취재 : 박 정 렬

건국대학교 사료영양학과 학생회(회장 : 한재규)가 주최한 제12회 「돼지와 즐겁게」 행사가 지난 5월 12일 건국대학교 본관 앞 민주광장에서 300여 명의 학생과 교수, 인근 주민, 취재진 등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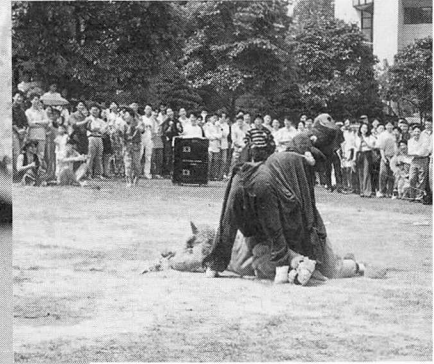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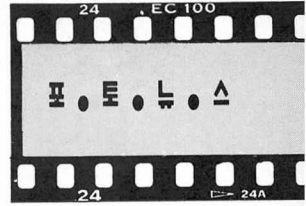
본회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건국대학교 대동제기간에 매년 개최되는 행사의 하나로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행사이다.

이번 「돼지와 즐겁게」는 「돼지몰아 목표물 돌아 오기», 「돼지상식 퀴즈», 「새끼돼지 치장하기», 「통돼지 바베큐 시식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는데 귀여운 새끼돼지 여섯마리가 선수로

등장, 참가자들의 열띤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레이스를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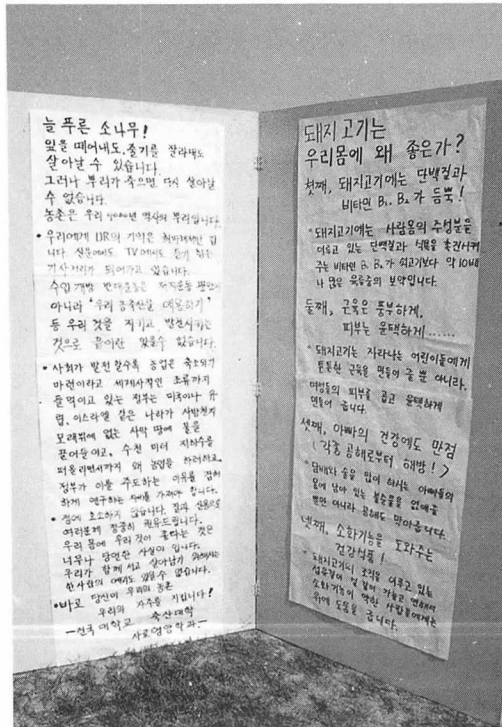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서울방송을 비롯한 방송국과 신문사 등에서도 취재, 폭넓게 소개됐으며 우유마시기 대회, 계란먹기 대회, 가장 투우 등의 행사도 이어져 관객들의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본회는 이날 학생들에게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본회가 제작한 돼지고기 요리책자와 팸플릿 등을 지원했으며, 학생회측은 돼지고기의 좋은 점을 대자보를 만들어 행사장에 부착하고, 홍보물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등 소비홍보 활동도 함께 벌였다.



〈사진 4〉 가장 투우. 우리의 황소가 외국소를 물리치고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음머-.”

〈사진 3〉 우리 돼지 착하지! 레이스 도중 갑자기 멈춰 선 돼지를 얼러대는 참가자의 마음은 안타깝지만 한데 사회자는 “우리의 돼지선수, 물이꾼이 마음에 안드는가 보죠.”라고 익살을 띤다.



〈사진 5〉 행사 마지막 프로그램인 통돼지 바베큐 시식회에서 바베큐를 시식하고 있는 학생들.

〈사진 6〉 행사장 옆에 설치된 대자보. 돼지고기에 관한 상식을 알려주고 있다.